

## 양안의 문화교육교류와 통일의 상관성

이광수(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 I. 서론

중국과 대만은 70년의 분단 역사를 유지해오면서도 상호 간의 인적왕래와 경제, 관광,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30여 년을 넘어 교류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이다. 1979년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명의로 [대만동포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양안 대화와 협상을 제기하고, 이어서 예젠잉 국가주석과 실질적인 최고통치권자인 덩샤오핑에 의해 [일국양제 평화통일] 방안을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교류 요구에 직면하게 되자, 그동안 접촉, 대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대중국 적대노선을 유지하던 장징궈 총통이 1987년 대만인의 중국 고향방문 허용이라는 인도주의적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양안의 상호 왕래 및 교류가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양안교류는 중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범위는 광범위하게 확대하고자 하며, 속도는 신속한 진전을 요구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본다면, 반면에 대만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범위는 경제와 관광, 교육문화 분야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속도도 점진적·단계적으로 속도조절을 하면서 나아가려 하고 있다. 따라서 양안교류는 우선적으로 경제교역을 하며, 정치교류는 나중예(先經後政)라는 특징과, 민간교류를 우선하고, 정부관료의 교류는 나중예(先民後官)라는 특징을 보인다. 여기에는 양안의 국력의 차이와 국제정치에서의 차지하는 위치가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양안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 여러 형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통 양안 상호간은 시기별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형성된 자신의 입장과 상대방의 대응에 부합하는 형태로 대화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면서 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 1949년 이후 현재까지의 양안관계는 3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 분단에 따른 일방적 정치선전시기, 제2단계 상호인정에 따른 안정적 관계 시작 시기, 제3단계 경제문화 교류 시기이다. 이러한 상호관계의 형성에 미친 변인은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하드웨어적 요인과 정치적 상징에서 비롯된 정치사상적 차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요인이다.

양안문교교류(兩岸學術交流)는 외견상 비정치적 민간교류라는 특징을 보이고는 있지만, 교류를 진행하는 학술분야의 특징에 따라 정치적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양안의 정부, 정당 싱크탱크에 속하는 학자들의 교류일 경우에는 상호 정치적 의사를 확인하거나, 각자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 왕래 및 교류는 양안간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이다. 1987년 4만 6천여명의 대만인이 중국을 처음 방문한 이래, 30년이 지나면서 양안의 인적교류는 2017년도 기준으로 방중(訪中) 대만인이 580만 명이고, 방대(訪臺) 중국인이 290만 명으로 양안 인적왕래가 900만 명에 이르는 수준까지 증가했다. (2015년에는 980만 명에 이르기도 함) 또한 양안의 인적교류는 사업, 결혼, 학업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생활하는 집단까지 형성되는 수준이다. 그런 점에서 양안 교류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양안사이의 정치군사적 긴장관계의 수준을 떨어뜨리거나 해소하는데 있어서 중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 글은 양안 문교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추세에서 양안관계의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미래의 양안관계에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따라서 Ⅱ에서는 양안 문교교류의 양적 발전 추세와 특징을 살펴보고, Ⅲ에서 양안 문교교류의 다양한 모델을 분석하여 새로운 변화의 특징을 알아보고, Ⅳ에서 양안 문교교류가 통일과의 관련성에서 갖는 가능성과 한계점을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요약과 정리를 통한 시사점을 찾아볼 것이다.

## Ⅱ. 양안 문교교류 현황과 특징

### 1. 양안 문교교류 현황

양안 문화교육교류는 양안의 인적교류의 증가, 경제 교역의 확대, 정치적 긴장 완화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양안 인적교류는 2017년까지 30년의 기간 동안 지금까지 중국을 방문한 대만인의 방문자 총수는 1억 명에 도달하고,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의 총수도 3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1> 은 중국의 대만사무 부서인 [국무원대만판공실]에서 1987년에서 2017년까지의 양안 인적교류 통계를 그래프화 한 것이다. 방중 대만인을 표시하는 상단의 점선(파란색)은 매년 적지 않은 규모로 방문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중간에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던 연도는 대만독립 이슈로 인해 대만해협에 긴장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방대 중국인을 표시하는 하단의 점선(빨간색)은 방중 대만인의 규모와 증가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통계수치를 보이고 있다. 비록 적은 양의 증가폭을 보이기는 하지만 대만방문자의 수치도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였고,(자세한 수치는 표1 참조) 2008년 이후부터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마잉주 국민당 정부의 출범 이후 시작된 '92컨센서스'의 인정 입장 표명에 대한 중국의 우호적인 양안관계 개선 의지와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대만의 정책노선이 서로 호응한 결과이다.

<그림1> 양안 인적교류 통계



양안 교류는 분단된 상태에서의 두 지역(혹은 국가) 사이의 교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공산당의 영도권을 인정하

고 있는 중국이 안정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반면에 미국식 선거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자유선거제에 따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는 집권정당의 대중국 정책에 따라 상이한 양안교류정책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비교적 높다. 아래 <표1>은 대만의 정권교체 주기에 따라 영향 받는 양안 인적왕래 수치를 설명한 것이다.

<표1>을 보면 국민당 출신이나 대만독립성향이 강한 리덩후이, 민진당 출신 총통(천수이벤, 차이잉원)의 집권 시기에는 전년도에 비해 방대 중국인의 수치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당론, 일변일국론, 일중일대론과 같은 '2개의 중국'론을 주장하는 대만독립파에 대해 보내는 중국의 경고 신호이다. 반면에 중국과의 교류확대를 통한 양안관계개선의 입장을 보이는 국민당 마잉주 총통 시기에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양안인적교류를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1> 양안 인적 왕래 통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2018. 5. 24)

연도	중국 방문 대만인 수	증가율 (%)	대만 방문 중국인 수	증가율 (%)	설명
1987	46,679	--	--	--	대만인 대륙방문 시작
1988	446,000	863.8	8545	--	중국인 대만방문 시작
1992	1,317,770	39.2	10,904	21.1	92 양안구왕회담
1996	1,733,897	13.2	65,205	54.6	리덩후이 양국론 제기
2000	3,108,643	20.3	102,933	-1	천수이벤(민진당) 당선
2003	2,730,891	-25.4	124,616	-10.3	일변일국, 일중일대론 제기
2004	3,685,250	34.9	144,526	14.2	천수이벤 2기 임기
2008	4,367,594	-5.6	278,712	21.2	마잉주(국민당) 당선
2009	4,483,865	2.66	935,505	235.7	양안교류 확대 정책
2010	5,140,554	14.65	1,661,877	77.64	대만 장기유학생 입학 허용
2012	5,340,194	1.47	2,630,212	42.56	마잉주 2기 임기
2015	5,498,615	2.47	4,357,469	7.72	대만 방문 중국인 최대
2016	5,747,652	4.53	3,646,150	-16.3	차이잉원(민진당) 당선
2017	5,872,723	2.49	2,909,690	-20.2	訪中 증가, 訪臺 감소
누계	99,274,843		26,861,765		

출처: [http://www.gwytb.gov.cn/lajlwl/rywltj/201805/t20180524\\_11958157.htm](http://www.gwytb.gov.cn/lajlwl/rywltj/201805/t20180524_11958157.htm) 검색일: 2019.3.19.)

\* 짙게 표시한 연도는 대만의 민진당 집권 시기 대만 방문 중국인 증가폭이 감소한 시기.

<표1>에서 나타난 양안 인적왕래 통계는 양안교류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양안의 인적왕래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민진당 집권 시기에도 잠시 주춤거리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계속 증가하였다. 인도주의적 교류에서 시작된 인적교류였으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인적교류는 정치이슈와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6년 차이잉원 정부 시기에도 양안은 경색 정국에 따라 대만에 방문하는 중국인 숫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양안 사이 왕래 인원이 878만 명(방중 587만 명, 방대 290만 명)에 이르렀다. 반면에 한반도의 남북한 양측 사이의 인적교류는 2018년 7,498명(방북 6,689명, 방남 809명)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치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과 비핵화 협상 분위기에 따라 긴장완화가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sup>1)</sup>

둘째, 외부 영향 특히 대만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적 입장의 변경에 의해 영향받을 때, 대만의 중국국민당이 양안 관계의 악화를 일정 정도 완화시키는 행위자, 중재자 혹은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중국이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하면서 대만을 압박할 때는 당시 국민당 주석 렌잔이 ‘평화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공산당 총서기와 만나면서 긴장 완화를 시도하였고, 2019년 3월에는 국민당 출신으로 민진당 기반인 대만 남부도시 까오슝 시장이자 유력한 대권주자 황궈이가 중국을 방문하여 양안 사이의 위기 국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당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대만 내 정치적 역할과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고, 중국은 대만 내부에서 양안 관계 개선을 원하는 우호세력의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또한 민진당 역시 양안 관계의 지나친 경색은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셋째, 대만인이 중국에 가는 인원 규모가 대만에 가는 중국인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이다. 인구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양안 관계에서 이러한 특이한 현상은 인적교류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 대만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즉 양안 교류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입경 금지 조치와 함께 경제, 관광 분야와 문화교육 분야에서도 대만 입경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방대 중국인의 수량 제한은 관광 입경이 가능한 지역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하게, 대만 유학이 가능한 대륙 학생의 출신지역과 학교를 제한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sup>2)</sup>

<그림2> 대만 대륙위원회의 문화교육분야 중국 방문 대만인



출처: 柯采霽, 兩岸交流與臺灣民眾認同之變遷——2008年以來的分析 p. 65

<그림2> 대만 대륙위원회의 문화교육분야 중국 방문 대만인의 통계는 문교교류의 증가 경향을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다. 천수이벤 정부 시기이던 2005~2008년 전반까지는 1~2만 명의 대만의 문화교육계 인사들이 교류를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였고, 마잉주 정부의 양안교류협력 시기가 시작된 2009년에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3만명을 넘어서고, 2010년 5만명, 2011년에

1) 조국현, 작년 남북 인적교류 대폭 늘어, mbcnews. 2019-03-21  
[http://imnews.imbc.com/news/2019/politic/article/5213034\\_24691.html](http://imnews.imbc.com/news/2019/politic/article/5213034_24691.html) 검색일: 2019.3.21.)  
 통일백서 <https://www.unikorea.go.kr/books/whitepaper/whitepaper/> 검색일: 2019.3.21.)  
 2) 대륙유학생 대만유학 관련 법규 검색일: 2019.3.21.)

는 6만 명을 초과했다.

대만을 방문하는 중국인의 규모도 마잉주 정부 시기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2> 는 문화교육분야에서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의 구체적인 교류 분야와 방문자수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대만 대륙위원회에서 통계를 내는 문화교류 종사자 방대 인원 통계는 6개 소분야(종교, 교사, 학술연구, 체육, 언론, 학생)로 세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sup>3)</sup> 이 글에서는 문교교류와 연관이 깊다고 생각되는 교사, 학술연구, 학생 교류 세 분야와 언론교류 통계를 정리해 보았다.

<표2> 중국대륙인민 대만 문교교류 종사자 통계

항목	교수 교류	학술연구교류	언론교류	학생교류	합계
2014	60	369	176	25,790	26,395
2015	66	395	188	33,174	33,823
2016	58	415	187	32,648	33,308
2017	35	436	189	25,824	26,484
2018	38	344	179	20,597	21,158

출처: [https://www.mac.gov.tw/cn/News.aspx?n=4892E8B8F5C0E174&sms=AF44BFB2584887A0&\\_CSN=36A0BB334ECB4011](https://www.mac.gov.tw/cn/News.aspx?n=4892E8B8F5C0E174&sms=AF44BFB2584887A0&_CSN=36A0BB334ECB4011)

## 2. 양안 문교교류 특징

양안문교 교류정책에 대한 특징으로는 먼저, 양안의 교류 기본 원칙의 차이, 다음으로 원칙은 교류 촉진이나 실재는 제한적 추진 입장, 마지막으로 개방적이면서 영향력 행사와 방어 심리의 병존이라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sup>4)</sup>

### 1) 대만은 ‘가기 쉽고, 오기 어렵게’, 중국은 ‘오기 쉽고, 가기 어렵게’

대륙인의 대만방문의 양적 통계는 행정원 산하 내정부 이민서에서 발표하고 있다.<sup>5)</sup> 교류인력의 규모로 보자면, 우선 관광(단체, 개별) 목적 방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제교역인데 ‘삼통’으로 통계를 내고 있다. 세 번째가 문교교류로서 ‘전업교류(專業交流)’ 명칭으로 전문직과 연수생으로 분리하여 통계를 내고 있다. 아래 <표4>는 인적교류 총량, 전문직 신분, 연수생 신분 세 가지 부분에 걸쳐 통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3> 대륙인원 문교교류 목적 방대인원 통계 (2014~2018)

	인적교류인원 (만명)	전문직(명)	연수생(명)
2014년	394.8	124,796	25,790
2015년	414.4	137,215	33,174
2016년	347.3	96,539	32,648
2017년	269.6	85,909	25,824
2018년	266.2	80,339	20,597

3) 2013년 이전 통계 기준은 문교활동, 대중전파활동, 학술과기활동, 학술과기연구활동으로 되어 있다. <https://ws.mac.gov.tw/001/Upload/OldFile/public/data/3111416233571.pdf> 검색일: 2019.3.22.)

4) 이 부분은 대만학자 천더성과 천친춘의 연구를 주요하게 참조함. 陳德昇, 陳欽春, 兩岸學術交流之發展與評價－臺灣地區學者觀點的調查研究, 遠景季刊 第2卷 第2期

5) 대만 내정부이민서中華民國內政部移民署全球資訊網 <https://www.immigration.gov.tw/5385/7344/70395/167414/> 검색일 2019. 03. 23)

정부부문에서 대만 학생이 중국에 유학하거나, 학자가 대륙 방문하여 교류할 경우에는 제한 조치가 없다. 비록 초기에는 공무원과 교사는 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이후 휴가 신청을 통해 중국 대륙에서 문교교류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대륙학자의 대만방문 및 문교교류활동에 대해서 대만 정부는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신청 절차도 복잡하고 상호교류의 회수와 범위도 제한을 두고 있다. 대륙유학생 대상 3제한 6불가(陸生三限六不) 조치가 있는데, 국가안보, 비밀정보취급 관련 학과에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괄하고 있는데, 학자간의 문교교류에 있어서도 당연히 제한되는 부분일 수 있다.<sup>6)</sup>

중국에서는 비록 대만 학자의 문교교류 목적의 방중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방문횟수가 많거나 혹은 정치적 민감성을 지닌 단체, 개인의 경우에는 관리하는 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면 상세한 일정표 첨부 혹은 연락 단위와 개인 서명을 요구하여, ‘대만동포증(台胞證)’ 신청을 심사 거부하거나 혹은 입경을 거부하는 것이다. 한 예로 민진당 지지성향의 학자는 오랫동안 대륙 입경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학자의 대만 방문 학술 활동 심사도 엄격히 진행한다. 이 절차에는 정치심사, 토론주제, 대만 측 초청단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이외에 여러 단계의 관료주의적 심사 시스템을 거쳐야 하는 것 이외에 국대판 교류국의 심사 허가도 획득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비록 중국이 기본적으로 문교교류를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나, 교류 활동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정 정책과 논점에서 벗어나면 안되며, 대만 체류 기간 정치기울 염수 등 비교적 엄격한 요구조건이 존재한다.<sup>7)</sup>

## 2) 원칙적으로 양안교류 장려, 촉진 정책을 채택, 하지만 교류 정도와 형태는 제한

양안 문교교류에 대해서 양안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모두 교류와 촉진하는 조치를 채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상호 초청 방문, 교류 기회의 제공 및 교류 영역의 확대와 심화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실제 교류 진행과정에서 대만 대륙위원회는 1997년 양안 문교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중화발전기금(中華發展基金)’을 설립하여 문교교류를 추진하고, 양안 학자의 상호방문과 교차 방문 강의를 하도록 하여 양안문교교류 증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sup>8)</sup> 그러나 대만정부는 2014년 이 기금은 폐지되었다.<sup>9)</sup>

이외에 대만민간기금회와 단체도 풍부한 문교교류기회와 자원을 제공하여 양안교류의 실질적 진전을 촉진한다. 반대로 대륙의 문교교류활동은 주로 관방이 주도하며, 대륙 민간사회가 상대적으로 약화상태인 것과 대만문제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대만문제와 관련한 문교교류활동은 많은 경우 관방이 관리통제하며, 운영의 정도를 관리하는 것 역시 양안관계 평화와 적대의 상태가 결정한다. 바꿔 말해서 일단 양안정치의 적대 정세가 상승하면, 문교교류의 수준, 즉 등급과 규모가 하락하며, 반대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려의 입장을 취한다.

## 3) 상호 영향력 행사 심리와 체제 방어심리가 동시에 존재

6) 陸生三法Q&A - 國家政策研究基金會 검색일 2019. 03. 23)

7) 中共中央關於進一步加強對台工作的通知 中發 1991 3號文件 천더성 p. 92

8) 중화발전기금회 운영요강에 나타난 기금회의 성격은 대만학자의 대륙에서의 강의 및 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양안간의 학술인재교류 장려, 양안 학술 수준의 제고, 양안문교교류의 긍정적 발전 촉진을 기본 목표로 삼아 진행한다. 강의는 대륙지역 대학 및 학술연구기구에서 2주 이상의 교과과정 혹은 전문 강좌를 의미하고, 전임 교사를 맡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9) 中華發展基金管理會各項獎補助規定, 業經行政院大陸委員會102年12月26日陸文字第1020201026號令廢止, 並自103年1月1日生效102-12-31

양안 정부는 문교교류를 장려,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 직접적인 인적교류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쌍방의 인식 차이를 축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동시에 각자 체제의 우수성을 전파하고자 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시 말해서 대만 정부는 양안 문교교류의 추진을 통해 대만의 정치경제 발전의 성과와 자유민주적 정치사회질서를 참관하도록 하여, 대륙 학자들이 대만의 역사 발전과정과 현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적대인식의 해소와 상호 간의 제도의 우열을 체험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관방이 양안문교교류를 관리하기에 정치 색채가 농후하다. 중국은 ‘일국양제’의 기본 노선 하에서 대만독립 경향, 삼통 반대, 신중한 접근법(戒急用忍)에 대한 비판이 중점적인 요구사항이다. 중국은 대만 학자의 참관활동에 대한 배려에서 사회주의현대화의 진전과정을 이해하길 바라거나, 개혁개방 이후의 천지개벽의 변화라든가, 민족적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대만학자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비록 이런 상태이지만 쌍방 문교교류는 여전히 이상적이지 못하고, 신뢰의 차이와 함께 방어 심리가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력의 상승과 국제정치에서의 발언권의 강화로 인해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만정책을 통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혜택을 중심으로 해대조치 이외에 대만인과의 혈연적 유대감을 강조하는 운명공동체 노선을 주장하는 등 2012년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등장 이후 보다 다양하고 세밀한 형태로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의도하고 있다.

### Ⅲ. 양안 문교교류 모델의 변화

1990년대 이래 양안 문교교류는 일상적,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포괄적이고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가면서 양적 발전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대만에서 수차례의 정권교체 과정을 경험하면서 양안의 문교교류는 과거와는 다른 내용과 형태를 지닌 새로운 모델양식을 보이는데, 대략 교류 방식, 교류 범위, 교류 통로 세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1. 교류방식의 변화: 경제적 이익 중심에서 문화적, 정서적 유대 중심으로

그동안의 양안 교류가 인도주의적 목적하의 인적 왕래와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경제교역을 통하여 양안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교류방식은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고 혈연, 역사 분야에 걸쳐 공통 인식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문교교류 방식의 변화는 리덩후이, 천수이볜 정부에 의한 대만주체인식의 강화에 따른 탈중국화 현상의 확산 분위기에 영향받은 바가 크다. 중국은 일국양제 방식에 따른 평화통일의 달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만에게 경제적으로 양보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제공하고, 대만인에게는 대륙인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겠다는 교류 원칙에 따라 양안교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10여 년의 교류를 통해 단순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양안교류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를 통해 이제 문화적 수단과 통로를 이용해 대만과의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2002년 민진당 출신의 천수이볜 정부가 양안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각각의 국가라는 의

미로 ‘일변일국론’을 주장하면서 대만 독립 분위기가 고양되자,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억제하기 위하여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여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에는 무력개입을 통해 분열을 막는다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안교류를 대하는 방식도 변화하였다. 방향성은 경제적 이익 제공에만 국한하지 않고 문화적 정체성을 하나로 하기 위한 문교 교류도 중시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2004년 8월 12일 중국공산당 총서기 후진타오는 ‘대만으로, 가정으로,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入島·入戶·入腦·入心)는 대만정책의 기본 노선을 밝혔다. 즉 대만과의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특히 후진타오는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이 공산당의 선전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시를 했다. 국대판 부주임 왕자이시(王在希)는 국영라디오방송인 중앙인민방송국(中央人民廣播電台, 인광)개국 50주년 기념식에서 “(인광의) 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양안의 소통을 위한 다리이며, 중공 중앙의 대만정책을 방송하는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통로”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인광은 ‘평화통일, 일국양제’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10)</sup>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2년 총서기에 올라선 이래 2015년 국민당 출신의 마잉주 총통과 싱가포르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나, 상호간에 주석, 총통이라는 직위 대신 ‘선생(先生)’이라는 중성적 호칭으로 부르면서 양안 정상 회담을 진행하고, 2016년 이후 차이잉원 정부가 들어선 이후 ‘92컨센서스’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정부간의 공식회담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 양안의 문화적 정체성을 하나로 유지하기 위한 후진타오 정부 시기의 양안 문교교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시진핑은 양안관계를 일컬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兩岸是血濃於水一家人), 운명공동체(命運共同體), 양안은 한 가족(兩岸一家親) 등의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양안의 혈연적 유대와 문화적 정체성의 일체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교교류의 방식, 범위, 통로가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문화적 교류 방식의 확대에 대해 대만의 주요 정당은 점진적, 단계적, 부분적 교류 허용을 기조로 하면서 정파적 이해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대응태도를 보인다. 국민당은 문교교류도 확대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민진당은 문교교류는 중국에 의한 ‘문화통일전선’의 일환이라고 평가하면서 양안 문교교류는 중국에 의한 문화선전이며 결국 중국공산당, 중국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무비판적 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당에 비해서는 더욱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2010년 마잉주 정부가 시행한 중국유학생의 대만 대학 전면 입학 입학 허용 조치를 반대하거나 2013년에 중국 호남TV 에서 방영되었던 중국판 [나는 가수다(我是歌手)] 프로그램이 대만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대만의 친국민당 성격의 TV 방송국인 동삼TV, 중천TV 등이 뉴스 시간을 이용하면서까지 실황중계를 하였는데,<sup>11)</sup>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만 독립파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문화공격(和平演變)이자, 대만에 대한 세뇌공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에게 있어서 양안 문교교류는 복잡한 정치적 함

10) 인광의 대만방송은 1954년 8월 15일 개국하여, 현재 중화지성(中華之聲), 신주지성(神州之聲) 두 개의 채널이 있으며, 도합 매일 38시간에 걸쳐 표준어, 민남어, 객가어로 방송한다. 또한 현재 대만에는 5곳의 중앙 매체 신화사, 인민일보, 중신사, 중앙텔레비전과 중앙라디오방송이 보도와 방송을 하고 있는 것 이외에 복건, 광둥 지역의 언론사 등 모두 10여 곳이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다. 胡锦涛批示 对台广播“入岛入户入脑”, 2004.08.14., 万维读者网

<http://news.creaders.net/china/2004/08/14/490448.html> 검색일: 2019.03.06.)

11) 中共对台洗脑 苏贞昌：到“入岛入户入脑”地步, 2013-04-14

<https://www.tuidang.org/2013/04/14/> 검색일: 2019.03.06.)



의를 갖고 있다.

## 2. 교류 범위의 확대: 특정 대상 교류에서 포괄적 범위의 교류로

양안 문교교류 범위의 확대는 2014년 대만에서 발생한 해바라기 학생운동 이후 중국의 대만정책에서 나타난 미묘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8년 대만경제의 재발전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내건 마잉주 정부가 등장한 이후 자연스럽게 양안교류는 경색국면을 벗어나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마잉주 총통은 2000년대 초 대만경제 발전을 위해 ‘양안공동시장’ 개념을 주창했던 국민당의 원로 샤오완창(蕭萬長)은 마잉주 정부의 부총통으로 영입하였고,<sup>12)</sup> 2010년 중국과 함께 양안을 공동경제시장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양안 경제협력구조협정(ECFA)을 체결하였다. 이후 양안 경제 교역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되었는데, 현재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2009년 이래 매년 800억 ~ 10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 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다.<sup>13)</sup> 경제교역의 확대와 함께 2010년부터 일부분이지만 중국 대학의 학위과정을 승인하고, 중국학생의 대만 대학에의 입학도 허용하는 등 문교교류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양안서비스무역협정체결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내걸면서 20여일간 진행된 대만 대학생의 반중국시위와 2014년 대만지방선거에서의 국민당의 참패와 민진당의 압승은 중국으로 하여금 문교교류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양보 정책(讓利)과 대만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 부여 정책(惠臺)의 오랜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양안교류 반대운동이 발생하고, 정치적으로 양안교류를 적극 찬성하는 국민당이 패배한 것은 대만과의 교류에 있어서 교류대상에 대한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즉 양안교류과정에 있어서 대만의 중소기업 경영자, 대만 남부 지역 주민과 중저소득 계층, 청년세대들이 소외되고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 네 부류 즉 삼중일청(三中一青)을 대상으로 한 교류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최근에는 ‘일대일선(一代一線)’ 즉 지역적 구분 없이 대만의 청년 세대와 기층 계층을 대상으로 양안교류 정책의 수혜 대상 범위를 확장시키는 입장을 세웠다. 즉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의 집권 이후 정치적 대립 관계가 지속되면서 대만정책의 중점을 젊은 세대 및 기층 민중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대륙의 대만정책은 삼중일청에서 일대일선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sup>14)</sup>

중국 상해 대만연구소 상무부소장 얼용제(倪永杰)는 “기층에 대한 기존의 정의는 중소기업, 중저소득계층, 중남부 지역민 그리고 대만 청년이었으나, 현재의 기층에 대한 정의는 더욱 광의로 넓혀져 중남부 이외에 대평금마(대만 전체를 의미), 농림어목 산업과 제1선의 기층 노동자 계층이 대륙의 주요 공작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책은 실체에 접근하여, 대만의 하층 민중의 생활에 더욱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12) 양안공동시장(하나의 중국 시장)은 자유무역협정과 지역경제통합 개념으로 대만 국민당 샤오완창이 2001년 제기한 경제정책구상이다. 그는 리덩후이 총통 시기 경제부장으로 있으면서 대만을 제조업, 해운, 항공, 금융, 통신, 미디어 등 6개 산업의 아시아의 경제허브(亞太營運中心 Asia-Pacific Regional Operations Center)로 추진한다는 경제정책을 내세우기도 했었다. 이후 2008년에는 양안공동시장기금회(兩岸共同市場基金會) 이사장으로 중국 해남성에서 개최된 보아오포럼에 참석하여 후진타오 공산당 총서기를 접견했고, 이후 리커창 국무원 총리,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통하여 양안경제공동시장 모델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다.

13) 为什么大陆越让利 台湾人就越不想统一, 2017.04.06

<http://wenhuashijiao.blogspot.com/p/rangli.html> 검색일: 2019.03.22.)

14) 余元傑, 「三中一青」到「一代一線」之統戰分析

대만세신대학 왕정츠(王正則)교수는 ‘일대일선’은 ‘삼중일청’을 부정한 것이 아니며, 청년과 기층 대상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북부와 동부에도 청년과 기층이 있기 때문에 중남부 지역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중소기업의 화법도 중소기업가에 중점을 둔 것이고,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를 포함하지 않은 용어로, 곧 기층이라는 용어가 중하층 계층에 대한 더 적합한 용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경의 ‘일대일선’이라는 대만통전책략은 대체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삼중일청 정책을 더욱 확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안 문교교류 범위의 확대는 2014년 대만에서 발생한 해바라기 학생운동 이후 중국의 대만정책이 과거의 일부 지역, 계층을 특정한 양안 교류노선의 한계를 인식하고 정치적 영향을 가급적 덜 받고 지속적이면서 핵심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세대와 계층을 중심으로 교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교류통로의 확대: 국공협력 기반의 교류에서 다양한 민간교류통로 개척

양안 문교교류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교류 방식의 변화와 교류 범위의 확대는 교류 통로를 민간 주도의 다양한 단위에서 진행되도록 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 출발점은 대만의 국민당과 중국의 공산당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시작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양안 교류의 지속과 확대에 따라 국민당은 대만 민중에게는 양안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면서 얻게 되는 평화조성자(peacemaker)라는 역할을 획득할 수 있고, 공산당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양안교류의 지속과 확대에 따른 통일전선의 강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2005년 대만독립노선을 강력하게 지향하면서 미국에게서조차 문제야기자(trouble maker) 취급을 받는 천수이볜 정부를 둘러싸고 양안교류에 미치는 영향변수를 바꾸기 위하여, 국공(國共) 두 정치세력의 협력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대만 국민당의 렌잔 주석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공산당 총서기 후진타오와 만나 진행된 후렌회를 통하여, 양안 사이의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경제무역과 문화 분야의 교류를 통해 양안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 방침을 합의했다.<sup>15)</sup> 이후 ‘양안경제무역문화논단(兩岸經貿文化論壇)’, ‘양안기업가정상회의(兩岸企業家峰會)’, ‘해협논단(海峽論壇)’, ‘양안교류기지(兩岸交流基地)’ 등의 논단과 기지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수회에 걸쳐 개최되고 운영 중에 있다. 이들 논단의 표면적인 내용은 양안의 경제무역의 통합발전, 민간문화교류의 협력 강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단은 대만 국민당의 시각으로는 양안의 정치경제관계의 긴밀한 협력을 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수단이며, 중국 정부 즉 공산당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의제설정과 참여과정에 대한 장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대만의 민진당의 시각으로는 이러한 논단 모두가 ‘하나의 중국’의 전제하에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시각을 갖고 있다.<sup>16)</sup>

15) 후렌회에서 국공 양당이 체결한 5가지 합의사항이다. ① 양안은 92공식의 기초위에서 평등한 협상이 회복되는 것을 촉진한다. ② 양안의 적대적 상태를 종식하기 위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군사충돌을 방지한다. ③ 대삼통 등 전면적 경제협력관계를 수립하고, 양안 공동시장문제를 토론했다. ④ 세계보건기구등 국제활동참여문제를 논의한다. ⑤ 국공은 향후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수립하여 국공화해를 실현한다. 이 합의에 따라, 국민당은 대만의 야당 자격으로 중국과의 민간교류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마잉주 정부 시기에 중국유학생 입학 허용 등 본격적으로 문교교류가 시작되었다.

16) 許家睿, 兩岸關係的典範轉移與新挑戰, 2015. 09. 22., 想想論壇

<표4> 양안 경제무역문화교류 통로

명칭	양안경제무역문화논단	양안기업가고위급회의	해협논단	해협양안교류기지
의미	국공대화창구	경제네트워크 성격	민간교류창구	중화문화 공유와 전승
설립	2005년 4월 29일	2008년 9월 22일	2009년 5월 15일	2009년12월17일
개최 횟수	10회	중국 5회(08~13)	10회 제10회-2018년	22개 지방(성)의 71 곳 지정
비고	2016년 이후 중단	2013년 이후 양안 교차 개최		매년 추가 신설

<표4>의 양안 경제무역문화교류 통로는 양안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교류통로이지만 국공 협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민진당을 고립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민진당 집권시기에는 정치적 영향을 받기도 한다.

첫 번째 교류 모델인 ‘양안경제무역문화논단’은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이 2005년 국민당 주석 쑨원이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와의 만남을 가졌던 평화의 여행(和平之旅)에서 상호 동의하여 결정한 공동 활동으로, 92공식의 추진을 전제로 대만해협 양안 사이의 경제, 무역, 문화 분야의 교류와 대화를 추진하는 통로이지만, 국공 양당의 대화 통로 역할을 하면서 국공 논단, 국공플랫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이 논단은 경제무역문화논단 이외에 국공 양당 지도자 만남, 양당 대화사무 부서의 교류, 기층 당조직 인사의 교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민진당 등 대만의 독립파 세력에 의해 중국의 통일전선도구로 비판받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매년 개최되었으나, 2016년 집권한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는 국공논단이 국가기밀을 외국에 누설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기밀누설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국민당의 참여를 제한하여 2016년부터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2019년 개최와 관련해서 국민당의 우둔이 주석은 올해는 법적 제약 이외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sup>17)</sup>

두 번째 교류모델인 ‘양안기업가고위급회의’는 문교교류에 속하지 않는 경제교류 통로이지만, 중국에 자본, 기술, 인력을 투자하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대만경제인(台商)과 중국 경제인들과의 대화 창구이다. 그러나 국유기업을 포괄한 주요 경제단위도 공산당이 통제하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업가고위급회의는 양안 경제관련 대화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양안기업가고위급회의는 양안사이에서 경제무역문화논단, 해협양안 양회(해협회와 해기회) 경제회의, 해협논단 다음으로 중요성을 지닌 제도적 교류협력창구이자, 양안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들의 교류 협력 창구이다. 2013년부터는 대만과 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가고위급회의의 대표인 이사장은 중국측 인사는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이사장이 겸직하는데, 지난 회기에는 정페이옌(曾培炎), 이번 회기에는 북경시장을 역임했던 귀진룽이 담당하고 있다. 대만측 이사장은 국민당 출신으로 부총통을 역임했던 샤오완창이 담당하고 있다.<sup>18)</sup>

17) 芋傳媒, 國共論壇是否復辦 國民黨：謹慎考量, 2019.03.06., 中央社  
<https://taronews.tw/2019/03/06/272910/>

18) 「兩岸企業家峰會」簡介, 2019.01 <http://www.ceosummit.org.tw/about/?G=about>  
 峰会简介, 2018.12.18., 两岸企业家峰会秘书处

세 번째 교류모델인 ‘해협논단’이 양안 민간교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하여 문화교육분야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중국이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민간교류 통로이다. 다시말해서 해협논단은 ‘양안은 하나의 가족(兩岸一家親)’이라는 이념을 유지하면서, 보다 긴밀하게 대만 기층 민중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해협논단의 성격을 민간성, 기층성, 포괄성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해협논단을 통하여 양안이 각 영역에서의 교류협력, 우의와 애향심을 공유, 공동의 경제이익 추구, 민생복지 등의 제반 문제를 포괄하여 접근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해협논단이 개최되는 시기에 중국의 대만문제 관련한 고위직 정책결정자인 전국 정협 주석, 국대판 주임이 참석하여 정책방침이나 ‘해대’조치를 발표하거나 대만의 국민당 인사들과 대화를 하기도 한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회에 걸쳐 개최된 해협논단은 주로 대만과 근접한 위치에 있는 하문, 복주, 천주, 포천 등 주로 복건성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밖에 해협논단은 30~40여 종류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만 명 이상의 대만 민중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에 개최된 제8기 해협논단의 세부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특징이 여실히 나타났다. 전체적인 행사기획은 논단대회, 청년교류, 기층교류, 경제무역교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9개의 본 행사와 34개의 하부 행사로 분류되어 실시하고, 장소는 하문시를 주 행사장소로 운영하면서, 복주, 천주, 장주 등지를 하부 행사장소로 하였는데, 참가한 대만인 숫자가 13,000여명 정도에 이르렀다. 또한 대회에는 중국측 인사로 전국정협주석 위정성(俞正聲), 국대판 주임 장즈진(張志軍), 부주임 룡밍바오(龍明彪) 등이 출석하고, 대만에서는 국민당 부주석 후즈창(胡志強), 화련현장 보쿤치(傅崐萁), 신당(新黨) 주석 위마오밍(郁慕明) 등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해협논단의 활동내용을 보면, 복건성 자유무역시험구건설, 해상실크로드핵심지구건설 등 주제로 복주, 하문, 평담도(平潭島) 등의 복건성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양안 싱크탱크논단, 해협금융논단, 공동가정논단, 양안특색농촌자매결연, 양안창업투자발전논단 등의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민간교류분야를 지역별, 산업별, 농촌단위(鄉鎮村里)별로 세분화된 교류협력을 진행함으로써, 양안 민중이 함께 문제해결을 논의하는 구조를 조성하는 형식이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 민중 생활에 직접 관련 있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중심으로 기획한다. 이를 위해 해협논단 개최 기간 중국의 전통시장인 묘회 구경(逛廟會)이라든가, 지역특색 음식 교류, 농촌마을단위 교류 등을 포함한 축제형(嘉年華), 생활 밀착형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양안 민중간의 우의 증진 성격을 담고 있다.

양안교류로 인한 양안의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해협논단은 최근 몇 해 동안 청년, 네티즌, 대만경제인 2세 집단, 양안결혼가정 등 네 종류의 특별 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양안청년창업 추진을 위해서 대만 청년을 대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봉사를 통해, 응집시키자’ 이념 속에서 대만청년의 문제와 희망사항에 대응하기를 목표로 해협청년논단, 청년창업선도펀드(靑創先鋒匯)<sup>19)</sup>, 양안인재네트워크, 양안창업경진대회(創意塗鴨大賽)<sup>20)</sup> 개최 등 일련의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새로이 신설

[http://www.laqyjfh.com/laqyjfh2018/gyfh/201812/t20181218\\_12123435.htm](http://www.laqyjfh.com/laqyjfh2018/gyfh/201812/t20181218_12123435.htm)

19) 俞正声出席“乐业两岸 创享未来”青创先锋汇交流活动

2016年06月11日 21:09:19 来源：新华社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6-06/11/c\\_1119021919.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6-06/11/c_1119021919.htm) 검색일: 2019.04.02

20) 劉結一為塗鴨大賽點讚 用創意打破兩岸界限 2018/6/8, 중시전자보

했다. 둘째, 온라인플랫폼 설립을 통해 대만에서 공개적으로 해협논단 활동 방안 제안 받기를 통해 양안민중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했다. 셋째, 대만경제인 2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년 신세대’ 대만경제인 2세대 훈련캠프활동 진행하여, 복건성의 자연 및 인문 체험을 하는 행사와, 복건성 지역의 창업환경 탐방 행사 등을 통해 대만인 2세대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넷째, 양안 주민 사이의 결혼 이벤트를 기획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양안 100인 신혼부부 결혼증명서 의식 개최, 대륙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의 장기자랑, 양안결혼가정 좌담회 개최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양안 민간간의 정서적 유대감 향상과 문화적 일체성의 고취를 통해 양안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양안 통일에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네 번째 교류 통로인 ‘해협양안교류기지’는 양안의 민중 교류와 협력의 플랫폼으로 조국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중국에 설립된 양안 민간교류의 활동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주로 중국 역사와 중화 문화 속의 대만인의 정서적 유대를 인식할 수 있는 역사적 유적지를 중심으로 2009년 12월 산둥성 좌장시 타이얼장을 시작으로 2018년 말 현재 전국 22개 성시지역에 분포된 71곳의 교류기지가 선정되어 있다.<sup>21)</sup>

양안교류기지는 중국 국대판이 비준하고 설립한 양안협력교류를 위한 통로로, 양안교류의 지방특색과 경제무역문화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양안교류기지의 증설은 시진핑의 대만교류 강화 원칙에 부합한다고 평가한다. 국대판의 대변인 마샤오광은 “양안교류기지의 설립은 현지 문화자원의 특징, 대만교류 상황을 고려하고, 양안 동포의 ‘역사 회고, 문화 향유, 동포애의 교류, 공동발전의 추구’의 공간이 될 것이며, 양안동포가 같은 뿌리 같은 근원이라는 혈통과 정서적 일체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양안교류기지를 통해 정서, 경제, 사회, 문화 네 가지 측면에서 교류기지 활용효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시진핑 2기 시대가 시작된 2017년 19차 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교류기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교류기지의 선정 목적과 활용 의도를 알 수 있다. 2018년 6월 27일 국대판 마샤오광 대변인은 6곳의 해협양안교류기지를 발표했는데, 하남성 안양시 유리성,<sup>22)</sup> 복건성 천주시 남안 정성공 집터,<sup>23)</sup> 복건성 복주시 해협청년교류캠프,<sup>24)</sup> 중경시 치우구리성, 운남성 보산

<https://campus.chinatimes.com/20180608002156-262304> 검색일: 2019.04.02

21) 타이얼장고성(台兒莊古城)은 산둥성 짜오좡시(枣庄市)에 있는 옛 성으로 중일전쟁 시기이던 1938년 국민당군이 일본군에게 크게 승리한 타이얼장전투(台兒莊戰役) 승전지이다. 중국은 국민당군대의 승전지를 첫 번째 양안교류기지로 선정하여 중국인으로써 국공 양당이 공동으로 항일전쟁을 했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공동의 정체성을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22) 유리성(羗里城)은 하남성의 세 번째 교류기지이다. 앞 선 두 곳은 하남성 고시친근박물관(固始根親博物館), 신정황제고리(新鄭黃帝故里)는 2012년 선정되었는데, 하남성의 세 곳 모두 양안은 혈연과 문화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유리성은 주역문화의 발원지로 인정되는데 주 문왕이 은걸왕에게 잡혀 옥고를 치른 중국 최초의 감옥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미 이 지역에서 7회에 걸쳐 매년 [해협양안 주역문화논단]을 개최했는데, 7회 논단 개최시에는 국내외 학자 50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학술포럼회를 개최하는 등 국대판의 중점교류플랫폼이다

23) 남안 정성공 고리도 정서와 문화 두 측면에서 양안교류 중심지 역할을 한다. 복건성 천주에는 3곳의 교류기지가 있는데, 중국 민대연박물관, 진강오점시전통거리, 남안정성공고리로 지급시차원에서는 가장 많다. 남안은 정성공의 고향으로 대만인 선조의 주요 조적지 중의 하나이다. 이곳에는 정성공기념관, 정성공 능원, 연평왕사와 성공묘, 비림, 해상시사석 등 사적이 있으며, 정성공 정신의 계승하는 것에 유리한 것이며, 양안의 공통의 기억과 역사적 맥락이 있는 곳이다. 남안은 정성공 관련 역사유적이 풍부한 점을 이용하여, 양안문화, 민간신앙, 청소년교류 및 종친왕래를 적극 추진한다. 매년 성묘객과 문물탐사, 관광객 등의 방문자가 10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24) 해협청년교류캠프는 양안교류의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측면을 포괄한다. 2015년 설립하기 시작하여 2017년 제5회 해협청년절기간에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해협 청년의 날의 영구 캠프이자 복주 시에서

시 용릉현 송산향전유적지, 내몽고자치구 어얼다스시 징기스칸릉이다.<sup>25)</sup> 여섯 군데 양안교류 기지의 성격을 보면, 양안교류의 형식은 여전히 경제와 사회 두 측면을 중심에 두면서, 내용적 측면에서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양안 민중의 정서적 유대와 문화적 일체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통일논의에 미치는 영향

양안 문교교류는 현실적으로 분단 상태에 있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 각자의 목적과 의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한편 양안이 각각 처해있는 환경의 차이에 따라 ‘불일치’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일치와 불일치는 곧 양안의 통합, 즉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능성’ 측면과 통일 추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먼저 가능성 측면으로는 첫째, 양안 문교교류가 양안 정서적 차이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 둘째, 양안 교류의 지속과 확대가 평화적 양안관계를 형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 셋째, 중국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한계점 측면에서 보면, 첫째, 문교교류 자체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측면, 둘째, 양안 문교교류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영향력도 제한적이라는 측면 등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 1. 교육문화교류의 가능성

중국에게 있어서 양안교류의 궁극적 목적은 양안의 통일에 있다. 1979년 중국은 대만의 장징궈 총통에게 대화 재개를 요구하면서, 무력통일 방식이 아닌 ‘일국양제’ 방안을 평화통일 방식으로 제안했고 현재까지 기본적인 통일 원칙으로 유지되고 있다. 양안의 경제교역 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분야의 교류에도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 포용적 입장에서 대처하도록 작용하고 있다.<sup>26)</sup> 한편 대만은 정당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먼저 현재 대만 집권세력인 민진당은 대만주체주의의 강조 입장과 대만독립 지향적 노선에 따라 탈중국화 경향을 띠고 있는데, 이는 양안 문교교류에 대해서도 소극적,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도록 작용한다.<sup>27)</sup> 반

개최하는 양안청년활동의 중요 기지이다. 2018년까지 해협청년제 5회, 양안교육10년성과전, 교장논단, 제4회 비단길국제영화제 등의 활동을 하고, 2000여명의 양안 청년 교류를 통해 우의를 진작했다. 제6회 해협청년절은 2018년 8월 24항목의 활동을 하였는데, 양안청년논단, 양안청년교류회, 양안청년체험행을 3대 축으로 하여 양안청년의 실습훈련, 취업창업, 희극교육, 향촌설계, 사회자원봉사, 한자창의, 민박창신 등의 콘텐츠를 포함한다.

25) 중경시의 치우구려성, 운남성 송산향전유적지, 내몽골의 징기스칸릉 등이 양안교류기지로 선택되었다. 특히 송산향전유적지는 국민당군이 전투를 벌였던 관계로 대만의 노병들과 언론등이 관심이 많아, 매년 다수의 대만 국민당 노병들이 탐방하는 장소이다.

26)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 1월 2일 1979년 전국인민대표대회 명의로 ‘일국양제 평화통일’ 방안을 제안했던 [대만동포에게 보내는 글(告台灣同胞書)] 발표 40주년 기념 강화에서 양안교류의 확대와 활성화를 통한 양안 공통 인식의 확대와 일국양제 통일방안의 실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习近平：在《告台湾同胞书》发表40周年纪念会上的讲话，2019年01月02日

<http://cpc.people.com.cn/n1/2019/0102/c64094-30499664.html> 검색일: 2019.3.21.)

27) 차이잉원 총통은 국가안전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혜대리민(惠台利民)’을 내용으로 하는 양안 인민 융합정책은 일국양제 대만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차이잉원 정부는 대륙이 대만 경제인과 학생을 위해 제공하는 조치를 반대하지 않지만, 양안교류

면에 중국 대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민당은 선언적으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내포하는 ‘92컨센서스’를 수용한다면 양안 문교교류에 대해서는 적극적, 실용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sup>28)</sup> 이러한 입장은 문화적 공통성이라는 요인 이외에 대만의 정치구도에서 갈등 유발자라는 입장보다 평화 조성자라는 위상이 국민당에 정치적 이익을 부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안 문교교류가 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교교류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양안 문교교류가 양안간의 정서적 차이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이다. 최근 진행되는 문교교류의 특징은 양안 민중 특히 기층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 등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협논단 프로그램에는 양안청년대화, 양안 저명 기업가 초청 대화, 양안청년창업기지 행사, 양안 청년의 다(茶)문화 교류, 양안청년농민 교류, 양안 여자대학생들의 창업협동조합 활동, 양안 청년 마이크로영화제, 청년 과학기술전문가논단 등 취업, 창업 관련 활동 이외에 공익논단 등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구성되었고, 이러한 공동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대만 대상 31항 조치’는 대만의 경제인, 학생, 전문기술자, 청년교사,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향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만의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비교적 정확히 겨누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진행되는 양안 문교교류는 양안의 정서적 간극을 감소시키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는 평가가 양안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sup>29)</sup>

둘째, 양안 문교교류의 지속 및 확대가 평화적 양안관계를 형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이다. 이러한 시각은 정치적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한 문교교류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확대된다면 정치적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의 가설에 부합할 수 있다는 평가이다. 중국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100만 명에 이르는 대만 출신 경제인, 학생, 가족의 존재와 양안간의 수 백 만 명에 이르는 문교 교류 인사들의 교류는 그 자체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완충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는 평화적 양안관계 형성하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중국 천진 남개대학 대만경제연구소의 차오샤오형(曹小衡)소장은 현재 민진당이 집권하고 있는 대만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양안 관방의 교류왕래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만, 양안민중교류 특히 청년교류와 산업융합 분야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의 왕젠민(王建民)연구원도 미래 양안관계발전의 중점은 더욱 더 민간, 기층의 교류로 많이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양안 문교교류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sup>30)</sup>

---

는 진심을 담은 우호 조치가 되어야 하고, 일국양제를 추진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계하고 있다. 蔡召开国安会议反制习一国两制, 中時電子報,

<https://www.chinatimes.com/cn/.../20190312000088-260309> 검색일: 2019.3.24.)

28) 우둔이 국민당 주석은 2019년 1월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 70주년 기념 발언에서 언급한 일국양제는 시진핑의 미래 희망이며, (국공) 양당의 컨센서스는 아니라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국민당의 양안정책은 중화민국의 헌법 구조아래, 불통일, 불독립, 불무력대결 상태의 현 상황을 유지하고, ‘92공식, 일중각표(一中各表)’의 기초 위에서 양안평화와 안정발전을 확보하고, 양안교류의 추진과 양안의 제도적 협상시스템 회복 등의 조치로 양안교류를 확대하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芋傳媒, 國共論壇是否復辦 國民黨: 謹慎考量, 2019.03.06., 中央社

<https://taronews.tw/2019/03/06/272910/> 검색일: 2019.3.24.)

29) 魏艾, 2018 年第十屆海峽論壇評述

30) 「兩岸民間交流路越走越寬—解讀海峽論壇『新信號』」(2016 年 6 月 15 日), 2016 年 6 月 15 日下載, 《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tw/2016-06/14/c\\_129061334.htm](http://news.xinhuanet.com/tw/2016-06/14/c_129061334.htm).

셋째, 중국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이다. 대만에는 양안교류 자체가 중화문화를 통해 양안연결의 기초로 삼기를 희망하는 중국의 통일전선 도구라는 인식이 강하다. 즉 양안경제무역문화교육논단, 기업가고위급회의, 해협논단, 양안교류기지 모두 대만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통전공작의 도구이며, 단지 통로와 기지의 성격에 따라 통전의 대상이 다르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민진당은 의심과 조심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접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민당은 보다 포용적인 입장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가오슝시장 한귀위는 양안관계에서 중국대륙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언제나 통일전선적 입장으로 양안관계를 유지해왔다면, 대만 역시 대만의 자유민주적 제도와 사상으로 중국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념적 접근법보다는 실용적, 경제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입장을 채택하였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민진당의 지지기반인 남부 까오슝에서 시장에 당선되었다. 그의 승인에는 양안교류로 인하여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 이외에 문교 교류를 통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다는 요인이 작용했다고 본다. 그는 2019년 3월 말 홍콩, 마카오를 방문하고 중롄반(中聯辦: 중앙인민정부 주홍콩특별행정구연락판공실)을 방문한 이유로 독립파 정파인 시대역량당의 시의원들에 의해 중국의 통일전선 음모에 협력하여, 일국양제에 동의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을 받자, “가오슝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발을 감쌀 수는 없다.(再裹小腳) 이번에 친구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바로 헤어졌다. (이를) 어찌 대만을 팔았다고(賣台) 할 수 있느냐?”라고 답했다. 대만독립파에게 홍콩의 중롄반은 중국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며, 이곳을 방문한 것이 통전 선전에 이용당한 것이라고 보며, 가오슝 농어업 상품수출계약을 체결한 것도 정치적 타산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sup>31)</sup>

## 2. 교육문화교류의 한계점

양안 문교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나 통일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또는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교교류의 한계점을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양안 문교교류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영향력도 제한적이라는 측면, 둘째, 문교교류에 대한 민중의 우려와 부담 증가로 인해 통일 의식 고취에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측면 등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양안 문교교류의 가장 큰 한계점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변수에 좌우된다는 부분이다. 이는 문교교류가 양안의 관계개선이나 통일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만은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양안교류의 확대 정책에 대해서 통일전선전술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차이잉원 정부의 등장 이후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압력에 대한 불만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차이잉원 정부는 중국의 압력을 군사, 외교, 경제, 정보, 지방정치 등 5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대처한다. 군사적으로 군함과 전투기를 이용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훈련하는 행위, 외교적으로 대만의 수교국가들의 단교를 유도하거나 국제기구에의 참여를 불허하는 행위, 경제적으로 대만의 자본과 인재를 유인하고, 첨단 기술을 절취하는 행위, 정보상에 있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대만 민주체제의 공평과 개방을 파괴하는 행위, 지방정치에 있어서 대만 내부에 침투하여 정치적 의도를 지닌 구매로 지방정부를 유인하거나, 대만

31) 簡子琳, 出訪是為了配合對岸統戰? 韓國瑜: 高雄不能再裹小腳, 2019.04.01  
<https://www.storm.mg/article/1126844?srcid=> 검색일: 2019.04.08



기층 자치단체 간부들을 불러모아 대륙의 촌민위원회 간부로 임명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sup>32)</sup>

대만 민진당 정부는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항하여 방어하기 위해 우선 법적으로 양안인민관계조례와 국가안전법을 통해 대만 내부의 단결을 유도하고자 한다. 1991년 양안교류가 본격 시작되면서 1992년 7월 31일 정식 공포된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sup>33)</sup>는 양안 인민의 경제, 무역, 문화 등의 왕래와 파생되는 법률 및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2015년 6월 17일 수정까지 여러 회 수정이 되어 오면서 현재까지 양안교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 중의 하나이다. 이 법의 33조는 대만 인민이 대륙지구의 당무, 군사, 행정 혹은 정치성 기관, 단체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반자는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sup>34)35)</sup> 이러한 법규를 통하여 대만의 안보를 지키려는 목적을 내보이고 있다. 이밖에 대만은 [국가안전법]을 통하여 “대륙을 위하려는 목적으로 행정, 군사, 당무 혹은 공적 기구에서 일하던 대만인이 취득한 비밀 문서, 문헌, 정보, 물품을 염탐, 수집, 전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으며, (제2-1조) 위 조항을 위반하면 국가안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했다는 이유로 5년 이하의 형벌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sup>36)</sup>

차이잉원 정부는 2019년 1월에 중앙대만공작회의에서 나온 시진핑의 발언 이후의 양안교류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보이는 것도 정치적 변수에 취약한 문교교류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차이잉원 정부는 발언 이후 즉각적으로 ‘국가안전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방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양안교류도 통일전선전술의 하나로 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교교류를 ‘문화통전’의 수단으로 간주하면서 대책을 내놓았다. 즉 7개 분야 즉 양안, 민주법제, 경제, 외교, 안전, 국방, 사회 등 분야에서 국가안전부서와 행정부서의 행동 준칙으로 삼아, 국가안보를 강화하여 국가경제사회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sup>37)</sup>

한편 대만 정부는 여론조사 사례를 들어, 양안교류에 대해서 정치적 교류보다는 경제, 인적 교류를 집중하는 선택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3월 21일 여론조사결과에서 8할(79.0%)이 일국양제 통일노선에 반대한다. 8할 이상(83.9%)이 중국의 무력사용을 반대한다. 9할 가까이(87.7%)가 대만의 미래와 양안관계 발전은 대만인이 결정한다. 양안교류는 대등존엄원칙 유지와 정치적 전제를 배제한다는 대만정부 입장을 지지한다는 83.9%라고 발표하면서, 대륙위원회는 이러한 여론조사결과는 중국의 대만통일전선전술에 대한 반대를 표시하는 증거라고 평가했다.<sup>38)</sup>

32) 대륙위원회, [https://www.mac.gov.tw/cn/News\\_Content.aspx?n=F9057F9640B28033&sms=7C8440BC86E48FD9&s=380FEA14D103A4EF](https://www.mac.gov.tw/cn/News_Content.aspx?n=F9057F9640B28033&sms=7C8440BC86E48FD9&s=380FEA14D103A4EF) (검색일: 2019.3.21.)

33) 全國法規資料庫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Q0010001> (검색일: 2019.3.21.)

34) 全國法規資料庫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Q0010001> (검색일: 2019.3.21.)

35) 양안인민관계조례 제33조 위반자의 처벌은 일반 민중인 경우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현직 공무원, 기밀부서 종사자, 퇴직후 3년 미만인 공무원은 유기징역, 구류, 3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되어 있다. 周卫, 中国两会上神秘的“台湾省代表团”, BBC中文, 2018年 3月 14日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43385480> (검색일: 2019.3.21.)

36) 국가안전법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A0030028> (검색일: 2019.3.21.)

37) 蔡召开国安会议反制习一国两制- 中时电子报 - 中時電子報 <https://www.chinatimes.com/cn/.../20190312000088-260309> (검색일: 2019.3.24.)

둘째, 문교교류에 대한 민중의 우려와 부담 증가로 인해 통일 의식 고취에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측면이 한계점으로 존재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양안 문교교류는 정치적 변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때로는 문교교류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피해를 당하면서 문교교류에 나서는 개인, 단체들의 의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정치적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문교교류 사례는 간혹 발생하는 양안 상대방의 안보 법률 위반 사건이다. 2017년 중국법을 위반하여 구속된 대만 시민단체회원 리밍저사건(李明哲事件), 대만의 국가기밀법을 위반하여 구속된 중국유학생 저우홍취사건(周泓旭)<sup>39)</sup>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쉽게 영향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문교교류 사례이다. 이외에 대만에서는 류샤오보 병사(劉曉波 病逝), 캠브리지대학출판사 사건(劍橋大學出版社事件),<sup>40)</sup> 등을 사례를 열거하면서, 문교교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반체제 입장을 지닌 문교 분야 인사들에 대해서 특정 절기나 기념일에 활동을 감시하거나, 격리, 구속 등의 방식으로 개인의 활동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그외에 인터넷을 통한 감시시스템은 통신자유를 제한하고, 의견 발표의 자유는 통제되고 있다.<sup>41)</sup> 결국 문교교류 분야에서 사람들은 자기검증(自我審查)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유로운 발표를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이러한 자기검증을 강제하는 분위기는 결국 문교교류의 추진이나 확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상호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마지막에는 통일 분위기 조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최근 양안관계에 있어서 대만 출신 인사들이 중국의 정치행사에 대만 대표 혹은 중국 지역 대표로 참여하는 행위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양안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정치행사인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에 대만성 대표단이라는 명의로 참석했다. 2018년과 2019년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만성 대표단으로 13명의 대표가 참석했는데, 대부분 중국국적이며, 대만성에 태어난 사람은 경제학자 린이푸의 부인 천원잉이며, 나머지는 모두 중국 대륙 출생이고, 다수가 중국공산당원 신분을 지니고, 일부는 대만민주자치동맹(대맹) 신분도 겸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이유로 들어 대만의 대륙위원회는 대만인이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성의 대표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sup>42)43)</sup>

38) 台湾民意不接受「一国两制」, 陆委会新闻稿编号第034号, 108-03-21.

[https://www.mac.gov.tw/cn/News\\_Content.aspx?n=05B73310C5C3A632&sms=1A40B00E4C745211&s=D0EB21D18CDE079F](https://www.mac.gov.tw/cn/News_Content.aspx?n=05B73310C5C3A632&sms=1A40B00E4C745211&s=D0EB21D18CDE079F)  
검색일: 2019.3.21.)

39) 리밍저 사건은 2017년 대만의 시민단체인사 리밍저가 중국에서 '국가정권전복 선동죄'로 5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리밍저는 민진당원인데 대만에서는 인권침해사건으로 간주하면서 구속을 비난하고 석방을 요구했다. 한편 대만에서도 2017년 중국유학생 저우홍취사건(周泓旭)가 국가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역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두 사건은 양안교류의 정치적 민감성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41217181>

<https://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170508003734-260402?chdtv>

40) 영국 캠브리지대학 출판사가 중국의 압력을 받아 온라인공간의 민감한 내용을 삭제한 사건을 의미한다. China Quartely 학술잡지에서 1989 천안문사건, 티벳, 신장, 홍콩, 문혁 관련 300여편의 논문을 심사하여 삭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張彥, 迫於審查壓力, 劍橋大學出版社在華刪除敏感內容, 2017年8月21日

<https://cn.nytimes.com/china/20170821/cambridge-university-press-academic-freedom/zh-hant/> 검색일: 2019. 04. 02)

41) 문교교류에 대한 대만 민진당의 시각은 중국에 의해 진행되는 문교교류 인사에 대한 감시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제한 것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중공 정권을 비판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대륙에 들어가면 국가정권전복죄 명의로 체포와 재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2) 中國兩會上神秘的「台灣省代表團」- BBC News 中文 - BBC.com

<https://www.bbc.com/zhongwen/trad/chinese-news-43385480> 검색일: 2019.3.24.)

또한 스스로 자신을 ‘대만의 평범한 여성’이라면서 대만성 대표로 2019년 정협회의에 참석하여 양안 통일 촉진과 중화인민공화국이 합법정부라고 발언한 링요우스(凌友詩)에 대해서는 대만 정부는 양안인민관계조례 규정 “중국의 당정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50만위안(한화 약 2천 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sup>44)</sup> 유사한 사례로 2018년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에 참석한 상해 복단대학 외국문학원 원장 루리안(盧麗安)에 대해서는 대만정부가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대만 국적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린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문교교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방의 농촌단위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다. 즉 중국 복건성 농촌 마을의 기층조직인 ‘사구’ 혹은 ‘촌민위원회’의 주임이나 부주임 직위를 맡는 경우로 확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만 주민들이 복건성 평담현 지역의 촌민위원회, 거민위원회 아홉 군데에서 주임(촌장, 반장) 직위를 맡고 있으며, 이중 타이베이시 원산구 총순리의 리장 정닝치는 동시에 중국 농촌 촌민위 주임을 맡은 공로를 인정받아 복건성 부녀연합회로부터 ‘38 붉은 기수’라는 영예 칭호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대만의 내정부, 대륙위원회는 ‘양안인민관계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경고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sup>45)</sup>

양안 문교교류에서 나타난 이러한 사례는 양안의 일반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문교교류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인 행동에 대한 위험부담을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교교류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V. 결론

양안의 문교교류는 학자 상호 이해와 정서적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정치입장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도록 하여, 상호간의 일체감의 진작과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확산시키도록 작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분단국가로서의 양안의 교류는 정치의 영향을 벗어나 진행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온 양안 간의 인적 왕래 및 교류는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7년 4만 6천여명의 대만인이 중국을 처음 방문한 이래 2017년에는 방중(訪中) 대만인이 580만 명이고, 방대(訪臺) 중국인이 290만 명으로 양안 인적왕래가 900만 명에 이르는 수준까지 증가했다. 또한 양안의 인적교류는 사업, 결혼, 학업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생활하는 집단까지 형성되는 수준이다. 그런 점에서 양안 교류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양안사이의 정치군사적 긴장관계의 수준을 떨어뜨리거나 해소하는데 있어서 중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1990년대 이래 양안 문교교류는 일상적,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포괄적이고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가면서 양적 발전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대만에서 수차례의 정권교체 과정을 경험하면서 양안의 문교교류는 과거와는 다른 내용과 형태를 지닌 새로운 모델양식을 보이는데, 대략 교류 방식, 교류 범위, 교류 통로 세

43) 神秘的的中国人大台湾省代表团：一半以上是中共党员 ...转自多维新闻网, 2019-03-07  
<http://culture.dwnews.com/history/news/2019-03-07/60122214.html> 검색일: 2019.3.24.)

44) 台籍全国政协演说支持大陆 凌友诗违规遭台罚款五十万, 2019.03.15.  
<https://www.rfa.org/cantonese/news/htm/tw-penalty-03152019092254.html> 검색일: 2019.3.24.)

45) 大陆聘台湾里长任村委主任台当局扬言“要罚”\_手机新浪网  
[mil.sina.cn/.../detail-ihrfqzkc3005642.d.html?..](http://mil.sina.cn/.../detail-ihrfqzkc3005642.d.html?..) 검색일: 2019.3.24.)

까지 측면에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교류방식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 중심에서 문화적, 정서적 유대 중심으로 변화가 보이고 있다. 둘째, 교류범위에 있어서는 특정 대상 교류에서 포괄적 범위의 교류로 확대되는 양상이 보인다. 셋째, 교류통로에 있어서 국공협력 기반의 교류에서 다양한 민간교류통로를 개척하는 변화가 보이고 있다.

2005년 국공대화 이후 ‘양안경제무역문화논단(兩岸經貿文化論壇)’, ‘양안기업가정상회의(兩岸企業家峰會)’, ‘해협논단(海峽論壇)’, ‘양안교류기지(兩岸交流基地)’ 등의 논단과 기지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수회에 걸쳐 개최되고 운영 중에 있다. 이들 논단의 표면적인 내용은 양안의 경제무역의 통합발전, 민간문화교류의 협력 강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단은 대만 국민당의 시각으로는 양안의 정치경제관계의 긴밀한 협력을 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수단이며, 중국 정부 즉 공산당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의제설정과 참여과정에 대한 장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대만의 민진당의 시각으로는 이러한 논단 모두가 ‘하나의 중국’의 전제하에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시각을 갖고 있다.

양안 문교교류는 현실적으로 분단 상태에 있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 각자의 목적과 의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한편 양안이 각각 처해있는 환경의 차이에 따라 ‘불일치’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일치와 불일치는 곧 양안의 통합, 즉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능성’ 측면과 통일 추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먼저 가능성 측면으로는 첫째, 양안 문교교류가 양안 정서적 차이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 둘째, 양안 교류의 지속과 확대가 평화적 양안관계를 형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 셋째, 중국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한계점 측면에서 보면, 첫째, 문교교류 자체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측면, 둘째, 양안 문교교류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영향력도 제한적이라는 측면 등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비록 양안 문교교류는 서로가 인식 차이가 존재하나, 상대방의 입장변화를 과도하게 기대할 필요는 없고, 과도하게 엄숙한 정치적 의제에 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교류를 많이 증가하면 정감도 배가되고, 대만정치경발전의 감성적 이해와 이성적 인지도 배양되며, 이는 교류기능의 발휘에 도움이 된다. 실제에 있어서 분단된 이후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양안의 문교교류와 상호접촉은 중단되는 것보다 유지, 지속되는 것이 쌍방에 더 유리하다. 즉 ‘교류가 교류하지 않는 것보다 낫고(交流比不交流好),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낫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 陳德昇, 陳欽春, 兩岸學術交流之發展與評價－臺灣地區學者觀點的調查研究, 遠景季刊 第2卷第2期, 2001
- 兩岸交流30年－「三中一青」到「一代一線」之統戰分析 法務部調查局 清流雙月刊106年9月號)
- 黃奕維, 2016年 第8屆「海峽論壇」評析
- 魏艾, 2018年第十屆海峽論壇評述
- 許家睿, 兩岸關係的典範轉移與新挑戰, 2015. 9. 22. 想想論壇
- 王嘉州, 大陸增設海峽兩岸交流基地評述 - 法務部調查局